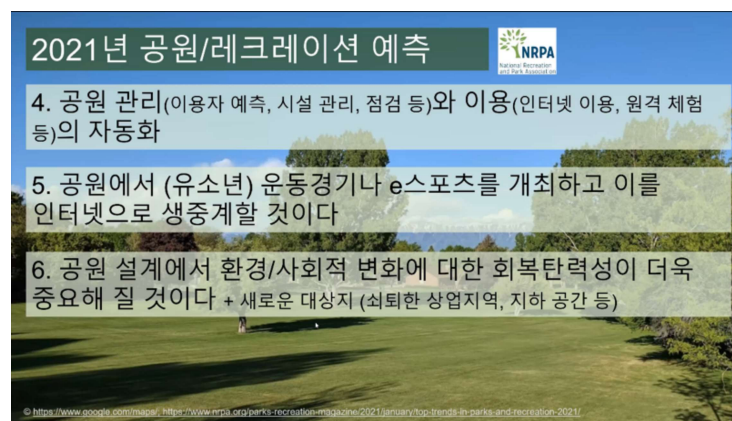


3. 팬데믹이 가져온 공원의 유행, 그 속의 형평성 문제

(박근현 / Utah State University)

2021 년 공원/레크레이션 예측

- 미국 NRPA 에서 매년 그 해의 공원 및 여가공간에 대해 예측하는 글을 작성하는데, 올해 예측한 글에 있는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도시들에서 공원과 가로, 혹은 두개가 합쳐진 공공 공간, 옥외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옴.
- 하지만 실제 예산은 경기 침체로 인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올해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 예측함
- 또한 작년 팬데믹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현상이 공원 이용에서도 나타났고, 올해 역시 그럴 것이라 예측함
- 계속 발전되어 오는 기술발전 추세에서, 공원 관리 이용이 자동화 될 것이고, 그리고 공원이용 특히 VR, AR 제공해주고 이런 어떤 인터넷으로 공원을 이용하거나 공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런 기술발전과 맞닿아서 예측 한 것이, 올해는 공원에서 운동경기나 e 스포츠를 개최하고 이를 생중계할 것이란 것임
-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변화와 맞닿아 회복탄력성, 리질리언스가 공원설계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이라 예측



연구 1: 2020 년 보행자 수 추세 분석

- 본 연구는 코로나와 관련없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 보행신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행자 수 예측 모형 (유타)
- 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로 인한 보행자수 변화, 그리고 도시의 환경에 따른 변화 예를 들어 인구가 더 밀집된 곳의 보행자 수 감소폭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공원이 있는 곳에 보행자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싶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연구
- 결과적으로 작년에 보행자수가 30%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4 월 5 월에 절반 이상 감소 한 것을 확인함
-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 학교나 교회 주변에서 보행자 수 감소폭이 큼.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주변의 보행자수는 덜 감소함

연구 2: 2020 년 공원 이용자 조사

- 두번째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 연구로, 2020 년 가을에 솔트레이크시티 거주민 4,304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0 년 공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조사함
- 실제로도 2019 년 대비 2020 년에 공원이용이 늘었다고 한 사람이 44%로 많았음. 감소했다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여성과 소수인종의 공원 이용이 더 감소했다고 나왔으며, 젊고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공원 이용이 더 증가했다고 나왔음
- 결론적으로, 공원 이용이 모든 그룹에게 균등하게 증가한 것은 아님

연구2: 2020년 공원 이용자 조사						
2020년, 누가 공원을 더 혹은 덜 이용했는가?						
2019년 대비 2020년 공원 이용 횟수	%	연령	성별 (남성)	인종 (백인)	가구소득	자가 유무 (자가)
감소함	16.3%	42.9세	45.0%	75.6%	\$ 91,849	76.9%
변화 없음	39.9%	44.3세	58.0%	81.7%	\$ 98,467	77.8%
증가함	43.8%	38.6세	49.2%	79.2%	\$ 92,951	66.5%
p-값	-	<.001	<.001	.003	.082	<.001
여성 및 소수인종의 공원 이용이 더 감소함						
젊고 월세를 내는 사람의 공원 이용이 더 증가함						

연구 2: 2020 년 공원 이용자 조사

- 두번째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 연구로, 2020 년 가을에 솔트레이크시티 거주민 4,304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0 년 공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조사함

- 실제로도 2019 년 대비 2020 년에 공원이용이 늘었다고 한 사람이 44%로 많았음. 감소했다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여성과 소수인종의 공원 이용이 더 감소했다고 나왔으며, 젊고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공원 이용이 더 증가했다고 나옴
- 결론적으로, 공원 이용이 모든 그룹에게 균등하게 증가한 것은 아님

연구 3: 2020 년 장애인들의 일상과 야외 활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2020 년 통행 행태를 조사한 연구로 39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다른 조건 (나이, 성, 소득 등)이 같을 때, 장애인 (특히 인지기능)의 마트, 식당, 실내/실외 여가 공간 (헬스장, 박물관, 공원 등)의 방문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병원, 학교 등 필수 시설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방문 빈도 감소 폭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과 연구 제언

- 공원이 가지는 효과가 사람들의 건강 효과,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효과, 경제적인 지속가능성 효과 등이 있지만, 특히 팬데믹 가운데, 공원의 건강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를 일깨워줬음
- 하지만 공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ibility)과 이용성(usability)이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라는 ‘환경 부정의’의 문제 또한 부각시킴
- 팬데믹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초점에 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함
-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기회로 삼아서, 환경 정의를 위한 공간들, 건강하지 않은 차량 중심 도시를 인간, 환경 중심으로 재편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보행, 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함
- ‘환경 정의’와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 + 도시 + 교통 + 환경 + 복지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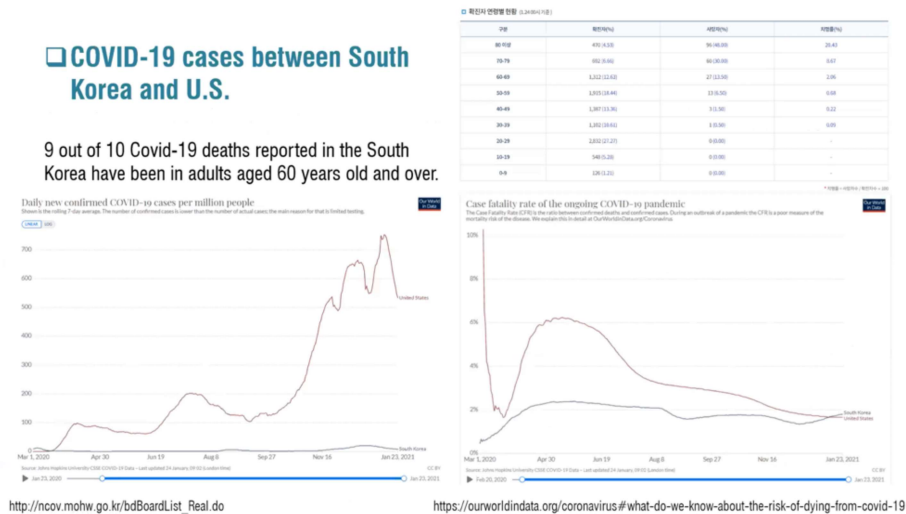


4. 팬데믹과 노인: 고령친화 외부공간을 위한 조경의 역할

(이성민 / Texas A&M University)

Risk Increases with Age

-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노인계층에 특별하게 위협적임. 미국의 경우 1 월 중순까지 34 만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고, 그 중에서 27 만명이 65 세 이상임. 병원 입원률 역시 노인 계층이 현저하게 높았음
- 한국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60 세 이상이 90 프로 이상을 차지



Why develop an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인 사회 위협이 커지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고령친화 도시 및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진되고 있었음
- 고령화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및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음. 고령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노인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와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 및 사회적 유대감 및 웰빙을 아우르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

How to meet PA guidelines after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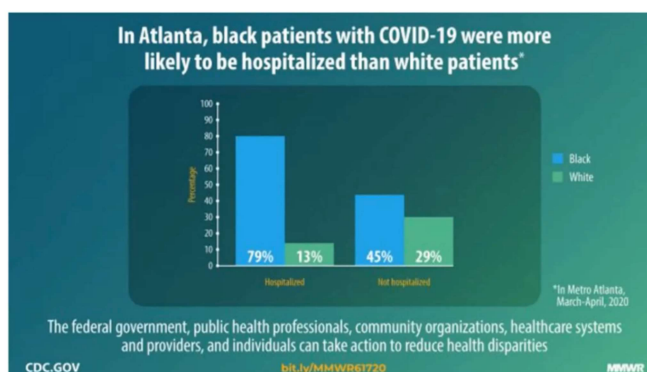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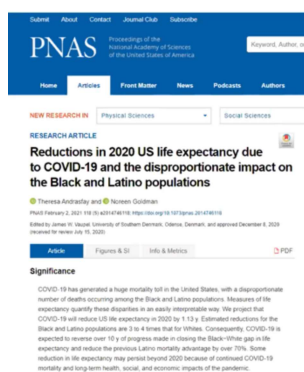
- 그 중에서 걷는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보면, 비용이 들지않고 누구나 손쉽게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방법임. 하지만 걷는 행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 걷기 행위가 가능한 규모의 semi-public 하고, semi-private 한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

Health Equity and Aging – Aging-friendly communities

- 또한 코로나 이후에 노인사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함. 예컨대, 흑인 노인들의 경우 백인 노인들에 비해 5 배 가량 코로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에 따라 인종에도 영향에도 영향을 주지만, 저소득 계층일 수록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요인, 유전적 요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

2. Health Equity and Aging – Aging-friendly communities

- COVID-19 is having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low-income communities. A Kaiser Health News analysis of federal data found that Black Americans ages 65 to 74 died of COVID-19 five times as often as white people in the same age group. For people ages 75 to 84, the death rate for Blacks was 3.5 times higher.



Aging in Place – Aging-friendly communities

-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로도 Aging in Place 라고,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증대된다는 기사가 있었음. 이유인즉, 코로나 이후 요양원이 코로나 확진 및 사망률을 높이는 주범이 되었기 때문
-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외부환경을 이용하는 행태 역시 많이 달라짐. 실외 공간이 실내 공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사실이고, 소규모 단위 및 개인의 외부활동 즉, 산책 및 자전거 타기 등 위 행위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음

Covid-19 and Outdoor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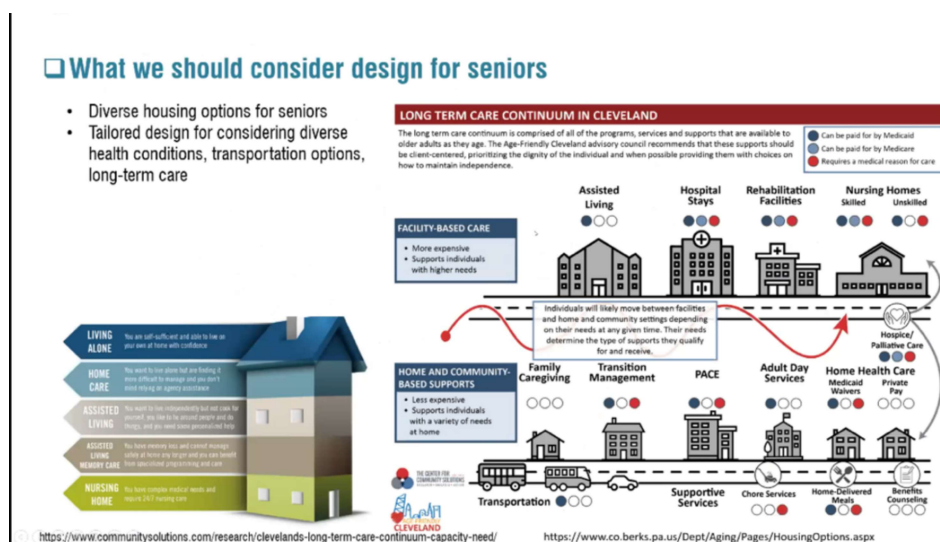
- 코로나 관련하여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멤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가장 급한 과제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대부분 적절한 음식과 질병과 관련한 의약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했고, 이는 워커빌리티 (walkability) 문제와 맞물려 있음
- 코로나 이후 공원 이용도 증대되고, 그린인프라와 조경의 역할이 늘고 있는 것 역시 사실. 그린 인프라가 건강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짐. 녹지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것 역시 밝혀짐

Manual of Physical distancing

-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도시 건축의 노력과 기반으로 여러 공간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공하고 있음
- 도시 인구밀도와 코로나 발병률이 큰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고, 워커빌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규모 외부 공간들의 이용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
-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로환경 및 공원 설계 안들을 제안함

What we should consider design for seniors

-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할 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노인들의 주거 공간이 케어 서비스나 비용들 다 고려돼서 다양한 옵션들이 주어지고 있음. 보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원하면서도 시설 내에 필요한 식사, 의료 및 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 형태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원, 재활시설 등과 같은 공간들이 있음
- 이러한 주거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필요한 니즈를 맞춰주는 외부공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



마무리

- 코로나 이후 외부공간의 중요성은 높아진 것은 사실임. 외부의 공기가 내부보다 순환이 잘 되고,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외부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젊은 계층이 모두 공간을 점유해 버리면 노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두려운 공간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노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법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조경학만이 노력할 문제가 아니며, 노인들을 위한 전용 시간을 제공한다든지, 다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해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